

가정형 호스피스, 입원형보다 2.5배 ↑

지난해 시범사업이 추진된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고 싶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선택권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30일 발간한 '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시된 가정형 1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말기 암환자 10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호스피스 전체 이용자는 4328명 중 입원형만을 이용한 3240명(75.6%)을 제외하고, 넷 중 한 명(25.1%)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가정형만 이용 312명(7.2%) ▲입원형·가정형 함께 이용 776명(17.9%) 등이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팀이 가정을 방문해 증상관리 및 가정임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원형 호스피스로만 일관되던 서비스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1개 기관을 통해 가정과 병원에서 단절 없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원형과 가정형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전국민의 약 75%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형 호스피스가 환자와 가족의 임종 장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열어준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암센터 말기암환자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자 785명 중 가정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20.9%(164명)으로 전체사망자의 가정사망률(15.3%)은 물론 암 사망자의 가정사망률(6.9%)에 비해 높았다.

또 입원형 호스피스에 비해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종 준비기간이 더 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스피스 이용기간(이용 동의서 작성일부터 퇴원일까지)은 입원형만 제공한 경우는 평균 25.4일, 가정형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62.9일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약 2.5배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암센터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사망을 맞이하고자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이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입원형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하는 것에 대한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가정형을 포함해, 지난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자문형 호스피스(일반병실에서 호스피스 제공) 등 호스피스 유형 다양화의 효과성 확인 등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 사망률 20.9%...암사망자 대비 2배이상 임종 준비기간 확보 등 '좋은 죽음' 의지 높아

로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또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호스피스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한 해 국립암센터, 9개 지역암센터 및 8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43명(19회)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표준교육을 제공한다. 지난 2008년 교육과정 개설 이후 누적 이수자는 총

4947명으로 늘었다.

한편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2016년 말 기준 입원형 77개로, 국내 암 사망환자 7만1819명 중 1만3662명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은 17.5%로, 전년 15.0%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사망자의 사별



제천 보덕굴 억고드름 30일 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1리 보덕굴 인근 보덕굴에 죽순처럼 땅에서 솟는 억고드름이 최근 맹추위에 만들어져 신기함을 더하고 있다.

어린이 완구 등 49개 제품 '안전기준 미흡'...리콜 조치

카드뮴·납·폼아마이드·CMIT/MIT 등 초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핑거펜트와 액체괴물 등의 완구를 비롯해 어린이 이용 온열팩, 플러스케이트, 이동침대 등 49개 제품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를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겨울철 야외활동용품과 가정용 어린이제품 및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33개 업체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명령대상 49개 제품 중 겨울철 야외활동용 어린이제품은 7종이다. 어린이용 온열팩 3종에서는 기준 70℃ 이하인 최고온도를 초과, 카드뮴 3.9~13.7배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5~20배 초과 등의 부적합이 확인됐다.

어린이용 플러스케이트 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3~189배를 초과했고 어린이용 스노보드 2

종에서는 납이 1.2배 초과했다. 일부 스노보드는 유지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낙상의 위험도 우려됐다.

가정용 어린이제품 가운데 이동침대 등 10개 제품도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아동용 이단침대 3종은 상당 안전율타리가 파손되거나 분리됐다. 바디메트 3종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캐리어 1종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를 넘어섰다. 어린이용 면봉 1종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에 달했다.

쇼핑카드 부속품 2종은 납이 기준보다 15배나 초과하기도 했다.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이 유통된 쇼핑카드도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핑거펜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유해물질 함유 완구 32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가족(2323명) 대상 만족도는 98%(2133명)으로 암치료기관 이용 만족도 58%(1315명)보다 크게 높았다.

암센터 관계자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료진의 설명이나 이용이 전반적으로 만족률이 높고, 입원 중 '고인의 삶에 대한 가족의 평가'에서는 "인간으로 소중하게 대하게 됐다"는 평가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인간중심의 의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뉴스시

예멘서 분리파·정부군 충돌 심화 36명 사망

예멘 남부에서 분리주의 세력과 정부군 간 무장 충돌이 심화하면서 예멘 내전 양상이 한층 복잡해졌다.

압드라부 만수리 하디 현 예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남부 예멘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예멘 남부의 독립을 주장하는 '남부 과도위원회'(STC) 산하 군대는 전날부터 예멘에서 정부군과 무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36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85명까지 늘어났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피신 중인 하디 대통령은 "반역과 무기로는 평화나 국가 건립을 이룰 수 없다"며 "핵심은 이란 후티 반군과의 전투다. 다른 부차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전투를 방해할 뿐"이라고 말했다.

예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이슬람 수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반군 간 내전이 진행되고 있다. 예멘 정부와 남부 분리주의 세력은 모두 사우디 주도의 아랍 연합군과 협력해 후티 반군과 싸워 왔다.

이번 예멘 사태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정부 간의 복잡한 갈등 구조를 노출했다. UAE는 연합군에 참여하고 있지만 STC의 남예멘 독립 시도를 지지하며 하디 정권과 부딪혔다.

남예멘과 북예멘은 1990년 통일했지만 남부 분리주의자들은 북예멘 위주의 통치에 반발해 재독립을 계속 주장했다. 예멘 내전으로 하디 정권이 남부 후퇴해 예멘에 임시 수도를 세우자 STC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인도서 버스 추락 사고로 최소 36명 사망

인도 동부 웨스트벵갈주(州)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최소 36명이 숨졌다고 신화통신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들이 29일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이날 52명을 태운 버스가 웨스트벵갈주 다울라타바드에 있는 지랑기 강과 연결된 수로에 추락해 3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추락한 버스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빠르게 달리는 버스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다리 난간을 부수고 강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현지 정부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사망자 중 여성과 어린이도 있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영해서 구조된 사람은 6명이라고 덧붙였다.

유압 크레인 4대가 동원된 구조작업은 밤새 진행됐다. 현지 TV 방송사는 재난당국 관계자들의 감독 하에 유압 크레인이 버스를 들어 올렸고 구조대가 버스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힌두스탄타임스는 일부 목격자들은 경찰에 사고 버스 운전자가 다른 버스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고 다른 목격자들은 운전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구조된 한 승객은 힌두스탄타임스에 버스가 5시30분경 카뮬푸르에서 출발했고 사고 당시 과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버스 52개 좌석에 승객이 다 앉아 있었고 입석 승객도 있었다고 말해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영비트코인 거래자 자택에 괴한 침입

영국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훔치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자의 집에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무장한 괴한들은 비트코인 거래자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그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 템스 벨리 경찰 당국은 옥스포드셔 마을에 있는 한 가정에 침입해 거래자와 그의 파트너를 위협한 4명의 괴한들의 모습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업자와 파트너가 괴한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가 현재 초기 단계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순찰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마을에는 크고 값비싼 붉은 벽돌 주택이 많고 '미드소머 머더스(Midsomer Murders)'라는 TV 탐정드라마 일부 에피소드에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을 시간에 괴한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촬영했거나, 이 마을의 A329 도로를 찍은 차량 블랙박스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괴한들의 침입 목적이 거래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였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정부 7대 정책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fare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

건강 IN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사망률	42%p 감소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18%p 감소
-----	---------	-------------	---------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h-welfare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